

2015 광주U대회 시민의 힘으로 ③ 쓰레기 불법 투기

몰래 버린 양심 부끄럽지 않나요?

“함부로 버린 쓰레기를 볼 때마다 시민들의 버려진 양심을 보는 것 같아 안타까울 뿐입니다.”

쓰레기 불법 투기 단속업무를 맡고 있는 광주시 일선 구청의 한 공무원은 단속할 때만 잠시 줄었다가 다시 기습을 부리는 쓰레기 불법투기에 혀를 내둘렀다. 심지어 불법투기 감시카메라에 적발된 경우에도 자신이 버린 쓰레기가 아니라고 ‘오리발’을 내미는 사례도 허다하다.

5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5개구 합동 단속반을 편성해 지난 한해 동안 쓰레기 상습 불법투기 지역을 단속해 불법 투기 471건을 적발, 과태료 3천163만9천원을 부과했다.

광주시·구청 작년 471건 적발 처리 비용도 무려 5억원 넘어 국제도시 걸맞는 시민의식을

시와 자치구의 꾸준한 지도·단속 결과 쓰레기 불법 투기가 주춤하고 있지만, 고질적인 불법 투기는 여전히

특히 ‘버려진 양심’을 단속하기 위해 막대한 재정이 투입되는 등 사회적 비용도 만만치 않다.

광주시내 상습 쓰레기 불법 투기지역 113곳에서 가동되고 있는 CCTV의 설치 비용은 1억1천300만원에 달한다. 지난 9월~12월까지 공공근로 인력이 투입돼 처리한 방치쓰레기 처리비용도 5억4천100만원에 달했다.

또 지난해 모두 12차례에 걸쳐 일제 대청소의 날을 운영한 결과 무려 737톤에 달하는 쓰레기를 수거했다. 가정에서 음식물 쓰레기의 수분을 제거하지 않아 이를 처리하는 비용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사정이 이런데도 쓰레기 불법투기는 여전히 시민의식 전환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오는 4월2일 개막하는 광주세계 광역스포츠, 세계장애인 탁구선수권 대회(6월)를 비롯해 세계주니어여자핸드볼선수권대회 등이 잇따라 개최됨에 따라 수준 높은 문화의식을 선보여야한다는 당위성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광주시 북구 두암동 광주병원 인근 한 식당 주인 김모씨는 매일 불법 광고물이 식당 앞에 쌓여 이를 치우느라 애를 먹는다며 실증된 시민의식을 나무랐다.

광주시가 국제적인 도시브랜드 구축에 나서고 있지만, 도시의 이미지는 시민들이 만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지난해 2015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 유치에 쏟은 열정을 이제는 수준 높은 도시 문화가꾸기로 승화해야 할 때다”며 “특히 도시미관을 해치는 쓰레기 불법 투기근절에 시민들의 동참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치매환자 급증 대책 시급

65세 이상 노인 11명 중 1명 꼴 발병

전남대병원 지난해 1천명

인구 노령화와 함께 치매환자가 급증함에 따라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저출산고령사회연구실 오영희 박사는 ‘노인의 치매 실태와 대책’ 보고서를 통해 지난 해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의 치매 유병률은 8.58%로 나타났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치매 환자는 지난해 45만명에서 올해 47만명, 2012년 52만명, 2020년 75만명, 2030년 114만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치매 환자의 의료비 증가에 따라 사회적 부담도 커질 것으로 전망됐다. 65세 이상 노인의 치매 진료비가 2002년 470억원에서 2005년 1천159억원, 2007년 3천266억원으로 5년 만에 6배나 증가한 점을 고려하면 치매 노인 증가는 장기요양보험 재정의 악화를 초래할 수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이와 함께 전남대병원이 신경과 외래 진료를 받은 치매 환자(2004~2008년)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04년에는 241명, 2005년 348명,

2006년 385명, 2007년 445명, 2008년 698명, 2009년 1천명(잠정 집계)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65세 이상 치매환자가 전체의 82.4%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반면 65세 미만 치매환자도 2004년에 55명이었던데 반해 2009년에는 2.5배가 늘었다.

특히 전남지역은 고령화율이 전국 최고여서 치매 노인의 증가세는 다른 지역보다 가파를 것으로 예상돼 지자체 차원의 대책 마련도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박인수 광주시립치매요양병원 이사장은 “치매는 어떤 질병보다도 조기발견이 중요한 만큼 조기 검진 사업을 국가 또는 지자체 차원에서 대대적으로 시행할 수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면서 “특히 치매는 개인은 물론 가족까지 고통을 받는 심각한 사회문제가기 때문에 국가와 지자체가 치매 치료관리 및 환자 부담 경감 방안 등을 조속히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채희중기자 chae@kwangju.co.kr

광주 이동전화위치조회 요청 하루 평균 5.4건

대부분 연락두절·가출 때문

지난해 광주지역에서 이동전화의 위치정보 조회 요청이 하루평균 5.4건에 달했다. 모두 1천984건이 접수됐으나, 이 중 31%(617건)는 법에 저촉돼 취소됐다. 하지만 대부분의 이동전화 위치 정보 조회 요청이 실제 사유와는 달리 단순 연락두절이나 가출 등이었다.

5일 광주시 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위치정보 조회를 요청한 원인으로는 자살기도가 절반에 가까운 49%

를 차지했으며, 실종이나 연락두절, 치매 등 정신질환, 조난 등이 그 뒤를 이었다. 10대는 부모들이 납치 등 강력범죄를 우려해 부모가 주로 접수하고, 20~40대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금전문제와 가정불화 등으로 자살을 우려해 가족이 조회를 요청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이동전화 위치정보 조회 서비스는 관계 법령에서 자살기도나 조난, 약물중독 등 급박한 상황에서만 이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윤현석기자 chad01@kwangju.co.kr

오늘 날씨

출근길 '조심'

찬 대륙고기압의 영향으로 구름 많고 눈이 오겠다.

해돋이 07시 41분 해질 17시 35분 달 뜨기 11시 05분



Table with weather forecasts for various regions including temperature, wind, and precipitation.

Table with 7-day weather forecast for Kwangju, including daily weather icons and temperature ranges.

조선이공대·동강대도 등록금 동결

조선대가 광주·전남 대학 4년제 대학 중 최초로 2010학년도 등록금 동결을 발표한 데 이어 조선이공대학과 동강대학 등 광주지역 전문대 2개교가 등록금 동결에 동참했다.

이반 조선이공대학과 동강대학의 등록금 동결은 지난 해에 이어 두 번째이다.

김형근 조선이공대학장은 “등록금 부담 때문에 학생들이 학교와 마찰을 빚거나 중도에 학업을 포기하는 일을 막고 대학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도 등록금을 동결하기로 했다”면서 “학생들이 학업에 열중하고

대학은 학생 지도에 매진해 중도 탈락하는 학생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조선이공대학은 등록금이 동결되더라도 학생 복지사업을 비롯한 면학 환경개선 등을 위해 외부 장학금 유치를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해 지역 대학 가운데 최초로 등록금 동결을 선언했던 동강대학(류재민 총장)도 총학생회와 협의해 2010년도 등록금을 올리지 않기로 결정했다.

/채희중기자 chae@kwangju.co.kr

신양파크호텔 개관 5주년 기념 고객 사은 대축제. 객실료 110,000, 레스토랑 10+5% 할인 이벤트.

JCI logo and text: 전라북도 청년회의소 회원 및 가족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010년 열심히 하겠습니다. 2010년 전라북도 청년회의소 회장단 일동.